

## 星泉의 인생관



“오직 너희 말은 예, 예 그리고 아니오, 아니오 라고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잘못에서 나온다.”(마태 5:37, 박영호 의역) 이 말은 시원스런 예수님의 말씀이다. 절대인 한얼나라(한얼님)는 예라고 긍정하고, 상대인 이 세상은 아니오라고 부정하라는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이 말을 좀 더 알기 쉽게 풀이한 류영모의 말이다. “예수와 석가는 상대세계에 대해서는 철저한 부정(否定)이다. 이 세상을 철저히 부정하지 않으려면 석가, 예수를 믿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잠자는 것이다. 오느니 가느니, 성공이니 실패니, 가르치느니 배우느니 하는 것은 다 잠꼬대이다. 잠꼬대도 심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꿈이다. 거짓이요 가짜이다. 꿈은 깨야 한다. 인생이란 꿈 꾸다 마는 것이다. 꿈 깨자는 게 바른 생각이다. 꿈을 단단히 꾸면 꿈을 깬다. 잠을 잘못 자 꿈을 잘못 꾸어 저도 괴롭고 남까지 괴롭힌다. 사람은 마침내 깨자는 것이다. 깨자, 그제 깨지는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나를 위해 생각한다. 생각의 중심이 나다. 나는 있다. 나는 참이다. 이 나는 예(여기, 상대계)에 있는 내가 아니라

계(거기, 한얼나라)에 있는 참나다. 얼이요 빔인 영생의 일어나가 영원히 산다. 죽음의 제나(ego)에서 영성의 일어나의 생명혁명이다.”(류영모, 『다석어록』)

제나(ego)의 이 세상은 아니오(No)이다. 일어나(soul)의 한얼나라는 예(Yes)이다. 이 밖의 다른 말은 소용이 없다. 무슨 경전이라 이름하면서도 읽어보면 쓸데없는 소리가 많다. 그것은 깨달음의 소리가 아니라 홀림(미혹)의 소리이다. 이 홀림을 비유로 우스개처럼 류달영이 말하였다.

“한얼나라로 취재하러 간 신문기자가 한얼님과 회견을 하였다. 신문기자가 한얼님께 물었다. 한얼님 어찌하여 한얼나라에는 세상에서 한얼님을 위해 목회를 한 목사님들이 안보입니까? 한얼님께서 대답하시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쓸데 없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한얼나라에 못 온 것이다.

가장 비참한 것은 거짓된 교리에 묶여 정신적인 노예가 된 것이다. 모든 성자들이 말한 진리의 말씀은 한얼님께 이르는 길이다.”(류달영, 『행복의 발견』)

종교의 거짓말 대회에서 으뜸상을 차지할 것은 물론이나 마나 기독교에서 예배시간에 와우는 사도신경일 것이다. 자칭 사도 바울의 쓸데 없는 소리 때문에 이천 년 뒤의 자칭 무신론자인 버트런드 러셀의 쓸데없는 소리까지 이어진 것을 본다. 그리하여 인류 역사는 쓸데 없는 소리의 홍수가 되었다.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집의 삼킨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바울, 고린도전서 16:51:54)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재림을 진심으로 믿었다. 그들이 집 정원에 나무 심는 일 같은 것을 삼간 것은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믿음을 예수로부터 전해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는 분명히 다른 지혜로운 아들만큼 현명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으뜸가는 여진이가 될 수 없었다.”(러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예수는 분명히 말하기를 “영원히 사는 것은 일어나니 제나(몸나)는 죽어 없어진다”(요한 6:63 박영호 의역)고 분명하게 그 내용을 가르쳤다.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과거에도 없었듯이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죽은 몸이 부활해 승천하여 다시 재림한다는 것은 예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성자를 가려 보자면 그이가 얼마나 짐승인 제나를 죽여 탐진치(貪瞋癡)의 짐승의 욕심을 죽이고 버렸는가와 한얼님(날바나님)의 뜻을 얼마나 밝게 알아 전하며 좇았는가를 헤아리면 된다. 그 밖에 성자의 몸나의 생애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적기사를 행하는 초능력을 지녔으며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을 가졌느냐 등은 성자의 자작과 무관한 것이다. 제나로 죽어 수성(獸性)을 버리고 일어나 깨어 영성(靈性)을 좇음을 삶의 목적으로 하는 인물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지금부터 2천 5백년 전 석가 노자 공자가 처음이다. 그러나 기복 신앙은 그 전에도 있어 왔다. 제나로 짐승의 욕망을 탐껏 누리는 것을 행복으로 아는 이들이 초능력을 지닌 우상들에게 제물(祭物)을 바치며 몸삶의 행운을 비는 것이다.

초능력을 지닌 우상은 인물(人物)도 동물(動物)도 서물(庶物)도 상관이 없다. 대구 팔공산에 있는 갯바위 불상

이 영험이 있다는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전국에서 구름 떼처럼 몰려 온다. 바울의 대속신앙도 기복신앙의 일종이다. 속죄가 아훼신의 축복을 받는 전제 조건인 것이다. 예수의 제나를 버리고 일어나 깨닫는 영성 신앙에 이르지 못한 이들이 예수를 오히려 기복신앙의 한 제물로 또는 유능한 샤먼의 영(靈)으로 만들려고 쓸데 없는 픽션(허구의 소설)을 쓴 것이 복음서이다. 아버지가 낳아준 제나(몸나)가 거짓나라 이를 버리고 한얼님이 주신 일어나로 솟나지 못한 이는 예수 석가를 믿는다지만 바로 알지 못하고 따라서 한얼님(날바나님)도 모른다.

류달영은 바울을 비롯한 여러 신학자들의 교의 신학이 만든 우상적인 예수의 상(像)을 아주 싫어하였다. 한얼님과 예수를 그르쳐 놓은 것이 교의신학이라고 생각하였다. 교의신학이 일그러뜨려 놓은 우상이 아닌 예수의 본 모습인 여느 사람과 다름 없는 평범 진솔한 예수를 찾자는 것이다.

“오랜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그러뜨려 놓은 예수의 인성이지만 예수는 사형을 당할 만큼 괴박하여 그 당시의 암흑사회에서 용서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바로 보면 예수보다 더 평범한 인물은 없을 것만 같다. 우리가 예수를 까마득한 하늘 높은 곳의 하나의 우상으로 삼지 말고 평범하게 스승이나 형제로 우리들 몸 가까이 친근함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살아있는 한얼님(날바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면 우주적인 대자연을 통해서 읽을 것이다. 오늘의 종교는 방부제 넣은 곤충상자를 들여다보는 것과 별 다름이 없다. 우주 자연에는 한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있다. 우주자연은 거대하고 심오한 경전이요 우주정신(The Spirit of Universe)은 우리의 스승님인 한얼님(날바나님)이시다. 기축시대(基軸時代) 전에는 사람 가운데는 참나(얼나)를 깨달은 스승이라고는 없었다. 예수도 공자도 석가도 노자(老子)도 소크라테스도 학교 교실이나 교회 성당이 아닌 우주자연의 정신에게서 진리의 산 말씀을 넉넉히 먹고 마시고 자라서 만유보다 크신 우주정신의 아들이 된 것이다. 예수의 한얼나라로 돌아가자 석가 붓다의 날바나로 돌아가자 노자의 자연으로 돌아가자가 모두 같은 뜻의 한 말씀이다.”(류달영, 『행복의 발견』)

류영모는 이러한 말을 하였다.

“예수 석가를 다 몰랐다. 누구를 받들고 좇는 것이 다 제 욕심 채우려 드니까 모르게 된다. 예수 석가도 바른말을 하였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이 몸은 땅에 부딪힌다. 그러나 예수가 한얼님이 주시는 얼나를 참나로 깨달아 위(한얼님)로 오르신 것처럼 나도 제나로 죽어 얼나를 깨달아 위(한얼님)로 올라감을 믿는다. 이 점에서만 예수는 나와 관계가 있다. 그 밖에 속죄니 대속이니 하는 건 믿지도 않고 상관도 없다. 이 류영모가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애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자를 말하는 것은 공자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공자처럼 레프 톨스토이, 마하트마 간디처럼 한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좋고 옳다고 생각하므로 비슷하게 그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류영모, 『다석어록』)

류달영이 예수 석가처럼 거친 광야나 높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한 일이 없었는데도 마음속에 존심양성(存心養性)으로 영성(靈性)을 길러왔다. 영성을 기르는 깨달음 공부는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 신학교에서조차 가르치지 않는다. 예수가 말까지 하였는데도 소용이 없다. 예수가 “모든 잘못은 보아줄 수 있지만 얼(성령)을 업신여기는 자는 보아줄 수 없다”(마가3:28~29 박영호 역의)고 한 것은 얼나의 깨달음 가르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 것이다. 그런데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류달영은 공교롭게도 자업자득으로 영성의 깨달음 공부를 하게 되었다. 예수가 여리고 광야를 헤매면서 그리고 석가는 싯달타가 히말라야 고산 속에서 수행을 하였는데 그 수행이 무엇인가? 죽음을 생각한 것이다. 이를 장자(莊子)는 죽음을 가까이 하는 마음(近死之心)이라고 하였다.

류달영이 <근사지심>에 이르게 된 것은 약관(弱冠)의 나이에 수학여행을 가서 여행지에 있는 전연탄산수(삼방약수)를 급우와 많이 마시기 경쟁을 하다가 류달영이 위가 터지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류달영의 회상기를 옮긴다.

“이 날은 복통이 심하여 점심도 저녁도 못 먹고 객차 한 구석에 기대어 누워있었다. 숙소에 도착하여 심한 하혈(下血 피똥)로 방안을 피바다를 만들고 나는 기진맥진

하여 중태에 빠졌다. 이리하여 나는 사선(死線)을 넘나들면서 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야 했다. 홀로 누워서 인생철학의 생각을 펼쳤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란 누구인가? 산다는 것은 뭇 때문인가? 열은 내 생각을 보강코자 레프 톨스토이 전집을 읽은 것도 미신이라고 생각한 성경을 고쳐 읽게 된 것도 이 때였다.

김교신 선생은 학교 수업과 잡지 편집(성서조선)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차가 없던 그 때 삼십 리나 떨어진 내가 묵는 숙소까지 문병을 와서 앞으로 겨레를 위하여 일할 이 젊은이를 재기케 하여달라는 간곡한 기도까지 해주었다. 그 뒤로 나는 김교신 선생의 순수한 신앙을 배우고자 마음먹게 되었다. 내가 삼방약수를 미련하도록 과음하여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만든 부끄러운 화를 자초한 것도 사실이지만, 나에겐 틀림 없는 값진 약수였다. 내 인생 삶을 바른길로 지향케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류달영, 『행복의 발견』)

노자(老子)는 “화(禍)로다. 그러나 화 뒤에 복(福)이 기대어 있다”고 말하였다. 류달영이 개성 호수돈 여학교에 교사로 재직하던 입지(立止)의 나이에 낯선 노파의 임종을 지켜보아야 하는 죽음공부를 하게 되었다.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면 정기적으로 성서 연구회를 여는 장소이기도 한 김교신의 신앙동지인 경인선 오류역전에 사는 송두용을 방문하였을 때의 일이었다. 저녁식사를 한 뒤 류달영은 홀로 오류역전을 산책하다가 도로에 쓰러져 누워있는 노파를 발견하였다. 그 때는 일제 말기라 응급상황이 일어나도 방치되어 구호의 손길을 뻗는 안전망이 라고는 없었다. 류달영은 객지라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오류동 송두용 내외분에게 사정 얘기를 하였다. 송두용 부인이 집으로 데려오라는 말에 따라 선했던 사마리아인이 되는 기회를 얻었다. 업고 집으로 온 노파는 이미 의식이 없고 숨만 멈추지 않은 상태였다. 류달영은 미안스러워 송두용 내외께 주무시라고 청한 뒤 혼자서 노파를 지켰다. 노파는 자정이 넘어서 마침내 심장이 멈추었다. 그 때의 상황을 류달영이 이렇게 회상하였다.

“나는 숨진 할머니의 눈을 감기고 벌린 입을 다물리고 옆에 앉아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낯선 할머니의 모습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켜보고 있었다. 흰 머리카락에 많은 주름살과 여윈 두 볼에 파란만장의 인생풍상이

그대로 조각되어 있는 듯 하였다. 이 늙은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무슨 좋은 일을 했는지 또는 무슨 그른 일을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사람은 반드시 죽으며 엄숙한 결산을 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혈기가 왕성한 젊은 나지만 분명히 죽을 존재임을 느꼈다. 죽음이 나에게도 분명히 언젠가 찾아온다는 것을 확신하는 밤이었다. 누구에게나 꼭 닮은 죽음인데 모든 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을 안 죽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꿈 속에서 산다고 한다. 죽는다는 것을 알면 꿈을 깨는 것이다.

특별한 불일도 없으면서 믿음의 벼를 찾아 송도(개성)에서 이곳 오류동에 와서 하룻밤을 덕우(德友)와 회포를 풀고 송도로 돌아가려던 나인데 꿈에도 생각지 못한 생면부지의 한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된 것이다. 이 할머니도 낯선 이 집 아랫목에서 생소한 젊은이 앞에서 이승을 작별할 것은 나와 다름 없이 꿈에도 생각한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 노인은 죽기 위해 이 젊은이는 이 늙은이 임종을 위해서 여기 온 것처럼 생각되었다.” (류달영, 『행복의 발견』)

구약성경(잠언)에 보면 남의 혼인 잔치 집에는 빠지더라도 초상집에는 꼭 가야 한다고 한 것은 초상집에서 죽음 공부를 하라는 뜻이다. 장례식장에 가거나 공동묘지에라도 자주 가야 한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죽음에서 나의 죽음을 헤아려보아야 한다.

류달영은 참침(자식을 잃음)을 당하여 눈물을 쏟았다. 류달영 스스로의 고백이다. “자기의 반신처럼 사랑하던 사람의 관 앞에 앉아 밤을 세워 본 경험이 있는 이는 누구나 죽음이야말로 위대한 교사라는 것을 통절하게 느낄 것이다. 아름다운 사상이나 죽음에 직면해서 나온 것이다. 죽음이 생명의 존엄성을 발견하는 길은 없을 것이다.” (류달영, 『인생의 열쇠 꾸러미』)

류달영의 죽음 공부는 이어져 드디어 제나(몸나)가 거짓 나이고 한얼님이 주신 성령의 열나가 참나임을 깨닫게 되었다. 제나(몸나)는 살아 있어도 죽어서도 죽은 생명이고 열나는 제나(몸나)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관계없이 영원한 생명이다. 류달영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사람을 믿고 높이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성(靈性)의 나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불성(佛性)

Dharma)을 지녔다고 믿는 마음자리는 얼마나 높고 밝고 거룩한 것인가? 사람이 사람에게서 영성의 나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다고 하겠다. 내 자신 속에 짐승의 수성(獸性)을 발견하고는 놀라며 이것은 참나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종교의 첫 단계일 것이다. 내 자신 속에 한얼님의 영성(얼나)을 깨닫고는 기쁨에 잠기는 것은 종교의 성숙 단계일 것이다.” (류달영, 『인생은 무엇이나?』)

류영모는 이렇게 말하였다.

“예수 석가에게 나타났던 영원한 생명인 열나가 나에게도 나타났으니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열나가 존재하는 것은 틀림없다. 내 맘속에 열나가 나타났으니 열나를 보내주신 온통의 열나인 한얼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 (류영모, 『다석어록』)

류영모는 스스로가 열나를 깨달음으로써 예수 석가가 열나를 깨달은 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다. 스스로가 열나를 깨달으면 남이 깨달은 열나도 알아준다. 류달영은 갈 아스페스가 가리킨 인류역사에서 으뜸가는 5대 성인 소크라테스, 석가 붓다, 공자, 예수를 다름없이 성자로 경배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많은 이들이 성자로 받드는 이들이다. 류달영은 아직도 세상 사람이 몰라주고 있는 다석 류영모가 스스로 열나를 깨달은 성자임을 알아주었다. 그것은 류달영 자신도 열나를 깨달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스로 열나를 깨닫지 않고는 남이 열나를 깨달은 성자임을 알아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석 류영모를 평하기를, 어떤 사람은 기인(奇人)이라 또는 괴짜라고 말한다. 그의 생활이 보통 사람들과는 몹시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인(眞人)이라 또는 성자(聖者)라 추앙한다. 류영모의 인격이 참되고 거룩하였기 때문이다. 다석을 공자 못지 않게 어진 분이라 말한다 하여도 다석의 인품을 아는 한 사람으로서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이 나라의 지성인의 대다수가 이러한 안목을 모르고 살아간다. 참으로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것이다.” (류달영 『다석 류영모』)

류달영은 여러 성인들 가운데 어느 한 성인만 좋아하지 않았다. 모든 성자들이 제 각각 특색이 있는 대로 제나(ego)를 이겨 열나를 깨달아 한얼님의 뜻을 좇는 데는 일

치 공통함을 알았다. 그래서 모든 성자들이 그들이 제나로는 다르지만 한얼님(날바나님)으로부터 받은 얼나로는 하나인 것을 깨달았다. 석가만 좋아하고 다른 성자들을 배척한다면 그는 석가도 잘 모르는 이다. 류영모는 이렇게 말하였다. “영원한 생명에는 개인이란 없기 때문에 이름이 소용 없다” (류영모, 『다석어록』) 류달영의 생각은 류영모의 생각과 일치한다.

얼나를 깨달은 성자들의 공통점은 짐승된 욕심(飢慾)을 버리는 것과 함께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무달(無恨)의 정신이다.

이 사람은 죽음의 임상공부를 넉넉히 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스승으로 모신 류영모 함석헌 그리고 류달영의 죽음을 앞둔 병상을 찾을 수 있었다. 류영모는 구기동 자택으로 함석헌은 서울대학 병원으로 류달영은 시범아파트로 찾아갔다. 거동이 불편하니 자주 찾는 것도 성가시게 하는 결례가 될 듯하여 문병을 삼가며 드문드문 찾아 뵈었다. 성천을 마지막으로 찾아 뵈었을 때의 일이다. 침대에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여 일으켜 달라고 하였다. 손으로 상반신을 일으켜 어깨 뒤에 등받이를 고여 드렸다. 그 때 들려준 말 가운데 기억되는 말은 이것이다. “이제 내가 떠날 때가 가까운 것 같은데 그 때는 저 위(한얼님)에서 정해 놓으셨으니 내가 죽고 싶다고 빨리 죽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큰 고통 없이 숨이 쉴이면 좋겠어요.” 93살의 늙은이가 자신의 죽음을 남의 이야기 하듯 담담하게 하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성천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감격해 하던 경주 석굴암 불상의 미소를 닮은 듯이 보였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는 빛은 전혀 없었다. 의식도 또렷하였다. 이것이 성자가 보이는 무달(無恨)의 정신이구나 하는 느낌을 얻었다. “나 살아 한얼님 뜻에 따르고 나 죽어 한얼님 품에 평안하리(存吾順事 沒吾寧也)”(장황거 서명) 소크라테스, 석가 붓다, 공자, 예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류영모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죽음 맛 좀 보고파 그런데 그 죽음 맛을 보기 싫다는 게 뭐가? 이 몸은 땅에 내던져지고 얻은 한얼님께로 올리어야 한다. 한얼에서 온 얼은 들어서 한얼님께로 올리우고 땅에서 온 몸은 땅에 떨어진다. 살리거나 죽이

거나 한얼님 아버지 맘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들의 맘이다. 밥 먹고 똥 누고 하는 이 일을 얼마나 더해보자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다. 한얼님 아들인 얼나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얼생명을 가졌기에 이 껍질의 몸나는 아무 때나 죽어도 좋은 것이다. 몸의 건강은 소건강(小健康)이다. 대건강은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완전히 산 것은 죽은 것이다. 죽도록 살아야 바로 산 것이다.” (류영모, 『다석어록』)